

단 신

치위생학 교과목의 3년간 건강보험제도 반영 비교 분석

최효진, 오상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ystem and dental hygiene curriculum for 3 years

Hyo-Jin Choi, Sang-Hwan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e observation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rsons and the decrease in fertility rates, which may be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average age of the Korean people; according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hanges every year following this pattern. However,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reviewed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the recently published dental hygiene curriculum is selected,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 literature survey.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informa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and information that is not reflected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but which it is believed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as the part reflected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it was stated in three subjects of dental implantology, dental prosthesis, and conservative dentistry, and there were four case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curriculu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reflect the chang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that students can more easily understand dental insurance claim processes.

Key Words: Curriculum, Dental hygien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ceived: December 27, 2020 **Revised:** December 31, 2020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31, 2020

[†]**Correspondence to** Sang-Hwan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158 G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Korea

Tel: +82-42-600-8444, **Fax:** +82-42-600-8408, **E-mail:** dentsh27@konyang.ac.kr

I. 서론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료를 적정한 수준 범위내 보장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소득과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강제화된 강제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인,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혜택을 추가하고 저소득층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역할이 강화되었다(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0_2.html).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을 위한 제도가 변화했는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부담 인하로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조정되었다.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 자체를 보장하려는 의미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매년 갱신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4643).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대학에서는 병원에서 필요한 치과의료관리, 병원 관리, 병원마케팅, 치과실무란 과목, 지역사회 관련한 개론형태의 이론 수업, 행정 관련한 과목을 교과과정으로 배우고 있다(남현주와 최미혜, 2000). 김응권 등(2014)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료협조에 대한 업무의 과목이라고 하였다(김응권 등, 2014). 따라서 진료업무에 관련으로 임상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수영과 황수정(2019)의 4년제 23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조사에서 건강보험학 관련 교과가 22개 교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평균 2.6학점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강보험 관련 교과를 따로 교육하고 있었다. 김영경(2011)은 건강보험 관련 교과가 3년제 57개 대학 전체, 4년제 대학 21개중 19개였고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치과건강보험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밝혔다. 이수영과 황수정(201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임상에서는 취업할 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치과 건강 보험청구사 라고 78%가 선택했다. 하지만 손은교 등(2017)은 건강보험청구 관련 교과를 마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청구 관련 교과 외에 치과임상학 관련 교과 이수시 건강보험청구와 연관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치과보험제도가 치위생학 교재에 포함여부와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에 대해 조사한 후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치과위생사 교육을 위해 출판된 치과임상학 관련 교재이며 자료수집은 치위생학 교재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문사, 대한나래출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출판사 출판물 중 가장 최신으로 출판된 교재를 이용하였으며 치과건강보험의 3년간의 변화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은 문헌조사를 이용해서 연구하였다. 3년간 치과건강보험제도의 동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Table 1. 건강보험의 급여관련 내용이 표기된 치위생학 교재

| 내용 | 책 이름 | 저자 | 출판사 | 개재년도 | 변경된 날짜 |
|------------------------------------------------------------------------------------------------------------------------------------|----------------|-----|---------|------------|--------|
| 치과 임플란트 제작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 3단계= 최종보철물을 장착, 환자 교육 실시 | 치과 임플란트학 | 박철우 | 고문사 | 2017.02.05 | 2018년도 |
| 무절개 치과임플란트 방법으로 2단계(고정체식립술)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 실시 경우 가능 | 치과 임플란트학 | 박철우 | 고문사 | 2017.02.05 | 2018년 |
| 기존 인공치 수리 기준은 인공치의 파절이나 탈락이 존재 시 | 치과 보철학 | 이재봉 | 고문사 | 2016.02.15 | 2019년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러버댐장착, 접착제 도포, 즉일충전처치, 충전, 교합조정 등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 치과 보존학의 원리와 임상 | 정원균 | 대한나래출판사 | 2016.09.05 | 2019년 |

Table 2. 치위생학 전공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건강보험 급여의 3년간 변화

| 과목명 | 변경 날짜 | 기재되어야 할 부분 |
|----------------|-------|-----------------------------------------------------------------------------------------------------|
| 치과임플란트학, 치과보철학 | 2018년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서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 동일하게 적용 |
| 치과임플란트학 | 2018년 | 치과임플란트 치료계획 설정, 고정체 식립 후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첫 날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 2단계 종료된 것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 실시한 날 청구 |
| 치면세마총론 | 2018년 | 연1회 치석제거 산정(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산정) |
| 치과 보존학, 치과 재료학 | 2019년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모든 영구치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 적용. 기준은 1면, 2면, 3면이상 |
| 치과 보존학 | 2019년 |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치아의 경우만 보험 적용(치아우식증 k02x 상병명 필요) |
| 치과 보존학 | 2019년 |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수염으로 근관치료(치수절단 포함)후 레진 코어 급여 적용. (치아우식증 k02x 상병명 필요) |
| 치과 보존학 | 2019년 | GI, 아말감 충전과 같은 교합면이 건전 대구치 치아에 교합면 실란트 함께 협면에 레진 충전 시 산정 가능 |
| 치과 보존학 | 2019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다른 날 내원 시 충전물 연마 실시한 경우에도 충전물 연마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 최신 예방치과학 | 2019년 | 치면열구전색술 시행한 치아에 우식 발생 시 전색제 제거 후 광중합형 레진 충전 실시 경우 충전 비용만 산정, 전색제 제거 비용 인정하지 않음 |
| 치과 보철학 | 2019년 | 인공치 수리 기준에서 자연치의 손실로 의치상에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추가 |
| 치과 재료학 | 2020년 | 자가 중합레진(Clearfil F2) 충전 후 동일 치아 3개월 이내에 자가 중합레진 재충전 시 행위료 절반만 인정 |
| 최신 예방치과학 | 2020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행한 경우 행위료는 절반만 인정 |
| 치과 보존학 | 2020년 | 만 5세~12세 이하 아동 제3대구치 제외한 영구치를 대상으로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의 영구치는 1일 최대 4까지 적용가능 |
| 치과 재료학 | 2020년 | 광중합레진 충전 후 1개월 전후로 동일치아에 실시한 접착 전의 처치, 약제, 재료비용 인정 하지 않음 |
| 치과 보존학 | 2020년 | 광중합형 레진 충전 후 1개월 전후 동일치아 실시 경우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인정하지 않음 |
| 치과 보존학 | 2020년 | 발수 및 근관충전 당일 실시한 근관세척은 주된 처치에 포함해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 치과 보존학 | 2020년 | 단순근관충전은 유치에 실시한 근관충전으로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으로 인한 가압근관충전이 필요한 경우 가압근관충전으로 표현 |
| 치과 보존학 | 2020년 | 교합조정술에서 동일치아 충전처치 혹은 치수치료 같이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
| 치과 재료학 | 2020년 | 2020년 1월부터 치과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 기준 분리, 정제형 아말감은 보험목록 삭제로 다른 재료로 변경 |

조사하였고 비교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서 치위생학 교과과목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출간한 책 중 최신 출판물을 사용하였다. 치과 재료학, 치과 임플란트학, 치과보철학, 치면세마총론은 고문사, 최신 예방치과학과 치과 보존학은 대한나래 출판사 책을 선정하였고 교재를 검토하여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치위생학 전공 교재에 언급된 치과건강보험 3년간 변화

조사 결과, 건강보험의 급여 관련 내용이 표기된 치위생학 전공 교재는 Table 1과 같다.

2. 치위생학 전공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치과건강보험 3년간 변화

치위생학 전공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건강보험 급여 내역은 Table 2와 같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년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재에 반영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년간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을 조사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치위생학에 반영된 부분과 반

영되지 않는 부분을 문헌조사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 3년간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에서 치위생학에 반영된 부분은 치과 임플란트학, 치과 보철학, 치과 보존학의 과목에 포함된 4건이 있었고 3년간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에서 치위생학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19건이 있었다. 필요한 과목은 치과 임플란트학, 치과 보존학, 치과 보철학, 치과 재료학, 최신 예방치과학, 치과 재료학, 치면세마총론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치과 보존학 과목에 가장 높게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 관련 교과 이외에도 치과임상학 관련 교과에 건강보험제도를 반영하여 취업예정인 학생들이 입상에 나가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V. 참고문헌

- 김영경. 치위생(학)과의 치과건강보험 교육현황과 인식. 대한치과보험학회지 2011;2(1):15-22.
- 남현주, 최미혜. 치위생과 교과과정 분석. 중앙간호논문집 2000;4(2):133-46.
- 손은교, 김영진, 정화영. 치과 건강보험 교육이 자격증 취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7;18(9):386-94.
- 이수영, 황수정. 한국 4년제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대한치위생과학회지 2019;2(1):41-50.
- Kim EG, Lim SH, Kwon MY, Choi YY, Han JH. Analysis of tasks and education needs for dental hygienist for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Sci 2014;14(1):35-42.